

KIA '웃고' 시범경기 우천취소 LG '울고'

KIA 김기태 감독 "안방 10연전 등 18경기...무리할 것 없다"

LG 양상문 감독 "전국 순회·투수 스케줄 맞추기 걱정이네"

웃갈린 표정의 시범경기 개막날이었다.

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시범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덕아웃에 난로가 가동될 정도로 쌀쌀한 날씨 속에 비까지 내리면서 선수들은 땀만 풀고 시범경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 취소 결정에 앞서 웃갈린 표정이 눈에 띄었다. 일단 양팀 벤치의 표정이 달랐다.

KIA 김기태 감독은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는 반응이었고, LG 양상문 감독은 "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내리지 않는다. 그칠 것 같다"며 경기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김기태 감독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느긋하게 10연전을 치르게 된다는 '부상 걱정'이 우선이다. 또 시범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18경기나 잡히면서 캠프 시작에 앞서 구상했던 것보다는 테스트할 시간이 넉넉하다. KIA는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서 12차례 연습경기 일정을 잡았고, 곳은 날씨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모든 경기를 소화하고 왔다. 시범경기가 18경기나 편성됐다는 소식에 오히려 "비가 와서 연습경기 한 두 경기 쉬어가고 되는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무리해서 시범경기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KIA 벤치의 분위기였다.

반면 광주에 이어 마산-사직-대전-수원-문학-대구에 이어지는 전국 일주를 해야 하는 LG는 이왕이면 경기를 치르고 가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예정된 투수들의 이닝과 스케줄이 걱정이다.

LG 양상문 감독은 "타자들은 경기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투수들이 이닝을 점점 높여가야 하는 상황이다. 날씨도 맞춰져 있는 만큼 경기를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속한 봄비와 추위에 양 감독은 기대주 이준형의 선발 등판을 미뤄야 했다.

시범경기를 맞는 덕아웃 내 표정도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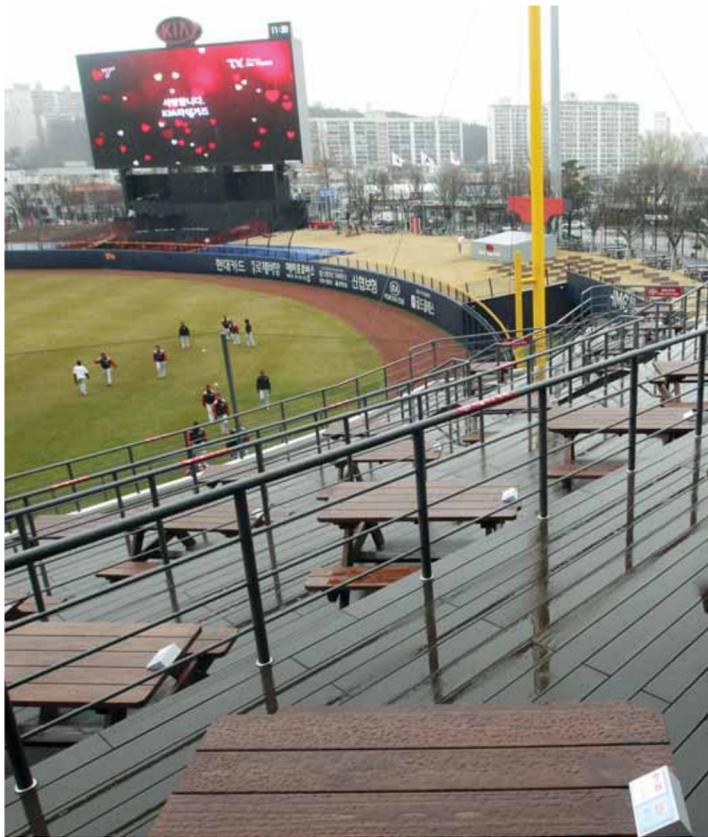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서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신인들은 상기됐지만,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안방에 앉는 꿈을 꾸고 있는 '꼬마 포수' 신범수는 훈련 시간 내내 싱글싱글 웃으며 그라운드를 오갔다. 오히려 '형님' 이흥구의 얼굴에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불안하고 기분이 그렇다. 열심히 훈련을 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다"는 게 이흥구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이흥구에게는 '모르는 게 약', 오히려 더 야구가 어려워졌다.

한편 8일 KIA 선발로 예고됐던 김윤동은 하루 미뤄 9일 마운드에 등판한다. 이후 홍건희-임준혁-양현중-헥터-지크가 순서대로 마운드에 출격할 예정이다. 어깨 점검을 위해 캠프에서 조기 귀국했던 윤석민도 주 후반 중간 투수로 나와 컨디션을 점검한다. 윤석민은 이날 70개의 볼펜 피칭을 소화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와 LG의 시범경기 개막전이 예정됐던 8일 챔피언스필드 외야에서 LG선수들이 비를 맞으며 몸을 풀고 있다. 이날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KIA타이거즈 제공>

KLPGA 세계대전

월드레이스 챔피언십 내일 중국서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16년 첫 정규대회를 중국에서 시작한다.

10일부터 나흘간 중국 동관의 미션힐스 골프클럽 울라사발 코스(파72·6158야드)에서 열리는 월드레이스 챔피언십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KLPGA 투어로 정규대회로 열리는 대회다.

총상금 70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는 중국여자프로골프협회(CLPGA)와 유럽여자골프투어(LET)가 KLPGA와 공동 주관한다. 이 때문에 출전 선수도 한국, 중국, 유럽 각 40명이 출전한다.

작년 12월 미리 열린 2016시즌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는 2015시즌 상금랭킹 2위 박성현(23·넵스)이 우승, 이번 시즌에도 강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박성현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지난해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를 휩쓸었던 전인지(22·하이진로도)도 미국 진출로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아 올해에는 새로운 여왕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올해 골프의 여왕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는 이정민(24·비씨카드)과 고진영(21·넵스)이다.

이정민은 지난해 3승을 올리며 상금랭킹 4위, 대상 포인트 2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냈다. 고진영도 지난해 이정민과 똑같이 3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5위에 올랐다.

이정민과 고진영은 대회 기간 이벤트로 열리는 단체전에도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올해 한국여자골프 여왕 후보로는 조운지(25·NH투자증권)와 김민선(21·CJ오쇼핑)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조운지는 작년 E1채리티 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8개 홀 연속 버디를 잡는 진기록을 세웠고, 상금랭킹에서도 3위에 올라 올해 활약을 기대된다.

2014년과 2015년에 1승씩을 올린 김민선도 한국 여자골프의 '영건' 멤버로서 더 높은 곳으로 비상을 노린다.

/연합뉴스

존재감



이대호

위기감



김현수

안도감



류현진

이대호 MLB 첫 홈런·추신수 멀티안타...김현수 18타수 무안타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메이저리그 첫 홈런포를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반면,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안타 생산에 또 실패했다. 메이저리그 입지가 탄탄한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는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두 개 이상)를 작성했다.

이대호는 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6회초 1루수 애덤 린드의 대수비로 교체 출전했다. 수비에서 홈 잡을 데 없는 플레이를 펼친 이대호는 8회말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다.

그는 6-10으로 뒤진 8회말 좌완투수 맷 레이놀즈를 상대로 볼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85마일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측 담을 넘기는 솔로야치를 그렸다. 미국프로야구 데뷔 이래 첫 홈런이다. 이대호는 초청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시애틀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이다.

이대호의 이날 홈런은 상대 투수 레이놀즈가 좌완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현재 이대호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왼손 투수에 약한 좌타 1루수 린드와 플레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대호는 해수스 몬테로, 스테판 로메로, 가비 산체스와 '우타 1루수'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이대호는 미국 비자 문제로 인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벌써부터 코칭스태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애틀은 이날 난타전 끝에 8-10으로 패했다.

김현수는 6번째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도 무안타로 침묵했다.

김현수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7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번 시범경기 성적은 18타수 무안타다. 볼넷조차 없어서 출루율도 0이다.

전날 만루포를 쏘아 올리며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첫 홈런을 기록한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팀 간판스타 조 마우어와 함께 휴식을 취했다. 미네소타는 3-0으로 승리했다.

추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2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다.

추신수는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선발투수 제이크 피비의 2구째 시속 86마일짜리 커터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쳐냈다. 3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피비의 5구째 시속 89마일 포심패스트볼을 공략해 우전 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프린스 필드의 안타로 3루로 진루한 데 이어 벨트레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득점까지 올렸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이학주(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6회초 카일 블랭크스의 대주자로 모습을 드러내 1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다. 텍사스는 3-5로 뒤진 9회말에 3점을 뽑아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류현진 8일만에 투구 재개...“어깨 불편함 통증 아냐”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8일 만에 투구를 재개했다.

가벼운 캐치볼이었지만,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불편 피칭을 연기한 뒤 다시 공을 잡은 건 의미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신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8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이 다시 공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날 류현진은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벌백랜치에서 캐치볼을 했다. 최대 30m에서 공을 던진 후, 어깨 상태를 점검했다.

지난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2월 18일과 27일 두 차례 불편 피칭을 소화하고, 변화구도 시험했다. 28일과 29일에는 가벼운 캐치볼을 했다. 순조롭게 재활을 소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세 번째 불편 피칭을 앞두고 류현진은 어깨에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 류현진은 2월 29일 캐치볼을 한 뒤 공을 잡지 않았다. 다저스와 류현진은 “정상적인 재활 과정을 밟

고 있다. 통증은 아니고 재활 중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은 5월 중순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복귀 시점이 미뤄졌다.

류현진은 6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벌백랜치에서 세 번째 불편 피칭을 하며 다시 몸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그는 불편에 서지 않았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은 아직 던질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5월 중순 마운드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활이 아주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했다.

현지 언론에서 류현진의 어깨 상태를 우려하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류현진은 8일 다시 공을 잡았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투구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